

# ‘정치1번지’ 종로, 민심 선택은… 최재형·곽상언·금태섭 3파전

## 22대 총선 격전지

인구 1만명 이상 洞 표심 얻어야  
0~17세 층 얇아 고령화 된 지역  
최재형 재선노려, 곽상언 단수공천  
금태섭 2030 이탈 이끌면 승산

제 22대 총선에서 ‘정치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 민심의 선택은 어느 후보로 향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로는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가 있고,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한 3명(윤보선·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다. 종로구는 3번의 총선(19~21대)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택받았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줬다.

### ◆국민의힘 ‘최재형’ VS 민주당 ‘곽상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20대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종로구는 2022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불출마 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무난하게 당선됐다. 판사이자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20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합류했고 ‘깨끗한 공직자’로 인정받으며 재선을 노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지도부 체제에서 최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으며, 당의 개선과 쇄신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곽상언 변호사를 종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토론회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로에 단수공천했다. 흔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상 그의 이름 앞에 붙는다. 이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에 이름을 많이 오르내렸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에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이의 반환소송을 벌였다. 다만, 대법원은 ‘누진 요금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곽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충남 보은군옥천군 영동군괴산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박덕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낙선한 바 있다.

### ◆인구 1만명 이상 ‘동(洞)’을 잡아라

종로구는 2024년 2월 기준 인구 약

14만에 조금 못 미치는 인구가 작은 자치구다. 그러다 보니 동별 인구가 1만명이 넘는 곳의 표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구에서 인구 1만명이 넘는 동은 청운효자동, 평창동, 혜화동, 창신 1~3동, 송인 1~2동이다. 이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평창동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혜화동은 보수세와 진보세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청운효자동, 창신 1~3동 송인동 1~3동은 진보세가 더 높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약 20%포인트 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을 찾아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곽상언 변호사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뉴시스

이긴 21대 총선에서도 평창동은 황 전 대표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역시 약 20%포인트 차로 이긴 8회 지방선거에서 송 전 대표는 비교적 강세 지역인 창신동, 송인동, 청운효자동에서도 패배하면서 선거를 내줬다.

10여년 간 종로구에서 선거 담당 업무를 했다는 관계자는 “종로구는 인구가 많이 줄면서 0세부터 17세까지 비유권자의 층이 얇다.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 ◆개혁신당 ‘금태섭’도 주목

최재형 의원과 곽상언 변호사 외에도



개혁신당 금태섭(가운데) 최고위원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태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대정치를 내세우는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의 존재도 종로 선거판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출신의 이준석 대표가 이끌지만, 금태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에서 당선된 바 있다. 금 후보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탈당했고 이후 21대 국회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개혁신당 후보로 종로에 도전한다. 세대정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이 지역의 2030 지지층의 이탈을 이끌어낸다면 최 의원과 곽 변호사 측에 지지율 하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정영채 “자본시장 잘 이해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NH투자증권 대표)

SNS 통해 4연임 포기 의사 밝혀  
“스스로 정리할 적기 판단” 언급  
“금투사 CEO 어려운 자리” 소회

국내 투자은행(IB)부문 1세대로 증권업계내 NH투자증권의 위상을 바꿔놓은 정영채 대표이사 사장이 ‘아름다운 퇴장’을 택했다. 지난 2005년 NH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투자증권의 IB 임원으로 몸을 담은지 20여년 만이다. 차기 대표를 선임하기 위한 1차 후보군(롱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시장에서는 4연임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이번을 ‘스스로 정리할 적기’라고 밝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선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앞서 전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이번 주총 때까지 역할을 하고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며 “한동안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스스로를 정리할 적기라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후배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나 스스로도 늘 준비를 하였다”며 “이젠 (NH투자증권도)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대우증권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부터 NH투자증권 IB사업부 담당 임원을 13년간 지낸 후 2018년 3월 대표로 선임됐다. 2020년 연임, 2022년 3연임에 성공했다.

취임 첫 해 5401억원의 영업이익과 3615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2021년에는 영업이익 1조3167억원으로 ‘1조클럽’에 입성했다.

특히 국내 IB 업계 전설답게 굵직한 딜도 줄줄이 성사시켰다.

여의도 파크원 파인네싱은 2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로 단일 증권사

PF 주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3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로는 최대인 것은 물론 국내 증권사가 투자한 인프라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정 사장은 “금융투자사의 최고경영자(CEO),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다”며 “우선 자본시장을 잘 이해해야 하고, 미래를,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금융업과는 달리 시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NH투자증권

에서 존재해 끊임없는 변화, 가격탐색 요구에 대응하고 시시각각의 판단이 조직의 흥망성쇠와 연결되어 있어 여타의 업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CEO의 역할을 평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정부, K-조선에 5년간 9조 투자… ‘R&D 로드맵’ 수립

산업부, ‘K-조선 경쟁력 확보 공동대응’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등 추진

정부와 조선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가 미래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9조원을 투자한다. 상반기 내 민관 합동으로 관련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연구개발 정책·사업을 기획해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선3사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이같은 내용의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 심화, 친환경·자율운항 등 미래선박으로의 전환, 인력 수급 불균형 등 업계가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정부와 업계가 윈윈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내 조선산업이 당면한 도전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민관 윈윈의 팀플레이로 헤쳐 나가야 하고,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업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10년이 향후 조선산

업 100년을 좌우할 것인 만큼, 조선산업 대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와 조선3사는 향후 5년간 친환경·자율운항선박·디지털 전환 등에 9조원을 투자한다.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2030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따른 생산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매년 2000명의 조선분야 전문·현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판교와 거제에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를 개소하고,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생산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업계도 3사 공동으로 해외조선인력 협력센터를 상반기 내 시범 운영, 해외 인력을 현지에서 교육 후 도입하는 지속 가능한 해외인력 도입체계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우수 해외

생산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와 업계는 이날 협약 내용을 이행할 플랫폼으로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오늘 발족한 이니셔티브를 정례화해 K-조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투자 애로도 지속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업계와 수주·수출 활성화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 애로 데스크와 현장 애로 데스크를 각각 조선협회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고, 특히 현장 애로는 산업부 실무진을 기업별 전담관으로 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